

아나르코 '애국주의자' 선언

심장중의강철

Манифест анархо-патриотов (П.А.Кропоткин, М.И.Гольдсмит и др.). [28.02.1916 г.]

대중에게 피해만 끼치며 독재 체제의 대한 혁명적 단체들의 대한 투쟁만 약화시키며 방해하고
'아나키스트'들의 활동을 방해한다.

Февраль 1916 г.

ГРУППА АНАРХИСТОВ-КОММУНИСТОВ

В БЕЖИЦЕ.

ГОПБ. ОРК. Коллекция листовок.

Гектограф (27,5 x 22,0).

아나르코 애국주의자 선언문.(크로포트킨[1]과 골드스미스[1]에게 전함)

1916년 2월 28일.

유럽의 노동계급은 암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군국주의가 결국 인터내셔널에게 독을 풀었고 애국주의라는 이름 아래 인터내셔널을 독살하였습니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제국주의자를 자처하며 제국주의 전쟁을 옹호하였고 심지어 몇몇 아나키스트들도 이 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노동자 계급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은 이들(크로포트킨, 장 그레이브[3], 샤를 말라토[4], 크리스티안 코넬리센[5], 폴 르클뤼[6]등)이 협상국의 '해방 전쟁'이란 거짓 선전을 믿었고 서로 모여서 협상국 지지를 표명하는 선언[7]을 냈고 부르주아 언론은 '아나키스트들도 우릴 지지한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바보같은 그대들은 전쟁을 끝까지 하길 원합니다! 반전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말입니다!

그대들의 논리는 아나키스트들에게 매우 괴이하고 이상한 헛소리에 그칠 뿐입니다!

협상국은 완전히 승리하지도 못할꺼고 독일 군국주의를 분쇄하지도 못할겁니다! 이 전쟁은 카이저와 그의 폭도들에게 도움이나 될 전쟁일겁니다.

따라서 그대들이 하는 소리가 '아나키즘 만세!'일지라도 정작 진짜로 그대들이 하는 소리는 '전쟁 만세!'밖에 안된다는겁니다.

사회혁명의 옹호자라는 작자가, 모든 형태의 권위와 국가를 거부한다는 작자가 '방어적'이라고 말해지는 제국주의적 포식자들의 전쟁을 옹호한다는 것은

인터내셔널의 계율을 배반하는 것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럴꺼면 더럽고 역겹고 천박한 사회주의적 애국자나 신군국주의자나 되시지 그러십니까? 아 이미 그러는 중입니까?

국제 아나키즘의 견고한 요새이자 성채인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의 동지들이
역겨운 아나코 애국주의자들에게 보내는 선언문

[1] **Князь Пётр Алексеевич Кропоткин**. '크냐지(대공) 포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1842~1921). 러시아의 아나키스트이자 지리학자. 황족 다음 가는 대공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공화주의, 나로드니키의 영향을 받았으며 알렉산드르 2세의 페이지(page boy)로 일하다가 농노의 상황을 보며 농노 해방 주장자가 됨.

이후 시베리아 행정으로 진출받아 일하던 중 지리적, 생물학적 조사를 토대로 상호부조의 생각을 품었고 이후 아나키스트 활동가가 되었고 프랑스, 스위스등을 거치며 아나키즘적 공산주의(아나키즘적 코뮌주의)의 토대를 만들고 정립함. 러시아로 다시 돌아오고서 2월 임시정부가 크로포트킨에게 교육부 장관을 맡아달라 했으나 거부하였고 이후 볼셰비키의 계급독재도 비판하며 모스크바에서 노동조합 조직등을 하다가 사망함.

[2] **Мария Иисидоровна Гольдсмит**. 마리 이시도로브나 골드스미스(1873~1933). 포트르 크로포트킨과 협력자였던 러시아 유대인 아나키스트이며 나로드니키로 시작하였다가 유물론과 다윈주의를 홍보했다는 이유로 추방되어 파리에 정착하였고 거기서 크로포트킨등의 인물과 만나 아나키스트가 됨. 1차대전 당시 크로포트킨과 같이 협상국을 지지했었음. 이후 회고록을 쓰고서(마호노에게 영향을 크게 줬음) 어머니의 죽음의 대한 슬픔으로 33년에 파리에서 자살함.

[3] **Jean Grave(1854~1939)**. 프랑스 아나키스트이며 쥘 게드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주의자로 운동생활을 시작했으나 스위스등을 거치며 크로포트킨을 만나 아나키스트로 전향하였고 **La société mourante et l'anarchie(죽음과 아나키즘 사회)**등을 저술하였고 각종 아나키즘적 저술, 문화 지원등을 하였음.

[4] **Charles Malato(1857~1938)**. 프랑스 아나키스트이며 나폴리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파리 코뮌등의 공동체를 지원, 옹호하다가 같이 추방됨. 이후에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의 대한 사면을 통해 다시 이탈리아로 왔으나 살인, 약탈, 방화 혐의로 또다시 15년을 감옥에 갇혔다가 런던으로 망명하고 거기서 드레퓀스 사건 규탄등을 하며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혁명 위원회에 참여하며 아나키즘 활동을 지속함.

[5] **Christiaan Cornelissen(1864~1942)**. 네덜란드의 생디칼리즘 운동가자 아나키스트.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던 생디칼리스트였고 실제로도 네덜란드 생디칼리즘의 대부 중 한 명이였으며 프랑스 CGT 간행물에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으며 1907년 암스테르담 국제 아나키스트 대회에 참가도 하였음. 자기 자신을 '아나키스트'가 아닌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 와 '생디칼리스트'라고 표현하였으며 당시 아나키즘 운동을 건설적이지도 않으면서 부정이나 해대는 무정형의 무언가라고 표현한 바 있으나 반권위주의의 투쟁에는 같이 나가기도 함.

[6] **Paul Reclu(1858~1941)**. 프랑스의 아나키스트이며 부모님도 파리 코뮌에 참가하였다가 취리히로 망명했었음. 생디칼리즘 선전을 저술하기도 하였으며 남부 프랑스에 아나키즘 조직을 조직하기도 하였고 1889년 파리 국제 아나키스트 회의에 참가하여 반권위주의, 개인의 자유, 직접행동등을 옹호하였고 이후 프랑스에 공장 관리자로 참가하여 아나키스트를 늘리려 했으나 공장 자본가가 전부 해고시키는 일을 겪기도 하였음. 이후 폭탄을 제조하였다고 기소를 받아 런던, 브뤼셀등을 건너 다시 프랑스 파리로 가면서 여러 활동을 남겼음.

[7] 16인의 선언(**Manifeste des seize**). 크로포트킨등의 인물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협상국을 지지하면서 낸 선언문임. 선언문 이후 수많은 아나키스트들 사이에서 국가주의적 아나키스트등의 비판을 받음.